

명소를 찾아-강근숙

세상 어디든 볼 것이 있다. 그러나 보고, 느끼는 것은 자유다. 나는 내 방식으로 본다.

- 천년의 물길을 연 임진강 황포돛배
- 끝나지 않은 전쟁
- 조선의 진종과 효순왕후의 마지막 안식처 -영릉
- 인조와 소현세자의 비극을 만나는 장릉과 경안군 묘 1
- 인조와 소현세자의 비극을 만나는 장릉과 경안군 묘 2
- 영조의 효심이 가득한 소령원 찾아
- 조선 왕조 신위를 모신 사당, 종묘

천년의 물길을 연 임진강 황포돛배



두지나루의 황포돛배

두지나루에 매였던 황포돛배가 밧줄을 풀고 서서히 몸을 튼다. 햇살 좋은 날 나들이 나온 연인과 가족들은 해설을 들으며 강변을 바라보느라 호기심 가득하다. 분단 이후 반세기 동안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던 임진강에 원형 그대로 황포돛배를 복원하여 2004년 봄, 두지나루에서 고랑포 여울목까지 뱃길을 열었다.

조선 시대의 주요 운송 수단이었던 황포黃布돛배는 광목에 물을 들인 돛에 바람을 받아 동력으로 운행하던 우리나라 전통적인 평저선平底船이다. 지금은 엔진을 달아 선착장에서 자장리까지 6.5킬로 구간을 돌아오는 50여 분 동안 ‘임진팔경’의 하나인 적벽의 뱃놀이를 즐길 수 있다.

임진강은 한반도의 허리인 중부 내륙과 북부지방의 남단에 걸쳐있다. 함경도 마식령산맥의 두류산에서 발원하여 강원도 북부를 흐르면서 연천에서 철원, 평강을 거쳐 흘러온 물은 한

탄강과 합쳐진다. 파주의 동·서로 흘러가는 임진강은 오두산 부근에서 한강과 만나 서해로 흘러간다.

연천에서 파주 사이를 흐르는 물살을 따라 황포돛배가 떠내려간다. 강물은 깨끗한 2급수지만 바닥에 현무암이나 검은 모래가 깔려 물속이 시커멓게 보인다. 강물 위에는 어구를 표시해 놓은 각양각색의 플라스틱 용기가 둥둥 떠 있다.

옛날에는 ‘물 반 고기 반’이라는 말이 임진강에서 나왔을 정도로 어종도 많고 수확량도 풍부했다. 지금도 피라미, 빠가, 누치가 많이 잡히고 황복과 장어, 참게는 귀한 대접을 받는다. 강가에는 어부가 있게 마련이고 매운탕도 일품이다. 두지리 어부들은 오늘도 강이 주는 풍요를 낚는다. 뱃전에 강에서 잡은 준치를 매달고 그물을 당기는 조각배가 한 폭의 그림이다.

임진강변의 자연경관



*60만년전에 형성된 임진강 적벽

임진강을 안고 줄줄이 이어지는 바위에는 이름도 사연도 많다. 절간바위, 자라바위, 빨래터 바위, 거북이가 서해를 향해 나오는 형상을 한 거북바위를 지나면 검붉은 적벽이 나타난다. 임진강의 생성은 약 2억 년 전 서로 떨어져 있던 두 개의 대륙이 충돌하여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다.

60만 년 전에 형성된 현무암 지대에 임진강이 흘러 침식 현상으로 만들어진 수직 절벽은 크고 작은 돌기들이 거대한 책꽂이 형태로 펼쳐졌고, 아래쪽은 마치 시루떡을 잘라 놓은 듯 돌이 포개져 있다. 한반도의 자연사를 여실히 보여주는 적벽 사이로 희귀식물인 돌단풍이 하얗게 피어있다.

돌단풍은 적벽 돌 틈에 뿌리를 박고 산다. 이른 봄, 화사하게 꽃을 피우고 퇴색할 무렵 꽃보다 싱그러운 진초록 잎으로 적벽을 감싼다. 그리고 가을에는 잎사귀가 붉게 물들어 뱃놀이 하는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편한 자리 마다하고 굳이 깎아지른 절벽에 꽃을 피우는 돌단풍은 아무리 봐도 대쪽 같은 선비의 고고함을 닮았다. 엇그제 내린 비로 물이 불어 적벽 가까이서 적벽과 돌단풍을 자세히 볼 수가 있었다.

선비의 풍류가 깃든 정자들

태평세월 선비들은 임진강가에 정자를 짓고 풍류를 즐겼다. 조선 시대 파주에는 20여 개가 넘는 정자가 있었다는데, 지금은 화석정과 반구정 두 정자만 남아있다. 울곡栗谷 이이李珣가 시와 학문을 논하던 화석정花石亭과 방촌 村 황희黃喜가 갈매기를 벗 삼아 시를 짓고 정담을 나누던 반구정伴鷗亭에는 많은 역사가 담겨있다.

검붉은 ‘자장리 적벽’은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의 대가인 겸재謙齋 정선鄭敼의 ‘임진적벽도’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260년 전에 나귀를 타고와 뱃놀이를 즐기며 적벽을 화폭에 담았을 선비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조금 내려가면 화선지를 펼쳐놓은 듯 넓적한 절벽이 보인다. 절벽에는 조선 중기 문신이자 전서篆書의 대가인 미수眉 허목許穆이 쓴 괘암卦巖이라 글씨가 새겨져 있다는데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육안으로는 보이질 않는다.

반구정 정자에는 미수 허목이 지은 반구정기가 걸려있다. ‘정자는 파주에서 서쪽으로 시오리 지점에 있는 임진강 하류에 위치하였다. 매일 조수가 나가고 물이 드러나면 하얀 갈매기 떼가 날아드는데 주위가 너무 편편하여 광야도 백사장도 분간할 수 없다. 구월쯤이면 철새들이 첫선을 보이기 시작하고, 서쪽으로는 바다의 입구까지 이십 리가량 된다.’고 당시 정자 주변의 풍광을 묘사해 놓았다. 연천에서 태어난 허목선생은 황포돛배를 타고 임진강을 오르내리며 흥에 겨워 절벽에 글씨도 쓰고 반구정 정자에 앉아 글을 지었으리라.

번성했던 고랑포의 흔적

자장리 적벽과 맞은편 원당리 적벽이 대문을 활짝 열어 놓은 듯하다. 강폭이 좁아지면서 물줄기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저곳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임진강 상류로는 마지막 포구였던 고랑포 지점이다. 물과 바다의 산물이 모이는 집산지였던 고랑포구는 6·25동란 전만 해도 인구도 문산, 파주보다 3배나 많았고, 화신백화점 분점이 있었을 정도로 번성했던 곳이다. 그때의 흑백사진을 보면 추가로 ㄴ, ㄷ자 형태의 집들이 촘촘하고 면사무소, 병원, 여관, 소시장, 곡물검사소와 우체국, 문방구 등이 있었다.



*고랑포 여울목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폐허로 만든다. 고랑포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적성積城이라는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까운 곳에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이 곳곳에 남아있다.

고구려 3대 성城 중의 하나인 호로그루는 고랑포 여울목 바로 위에 자리하고 있다. 삼국시대에도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였고, 뺏고 뺏기면서 주인이 바뀌었다.

임진강 하류는 수심이 깊어 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강을 건널 수 없으나 호로그루 부근은 무릎이 겨우 잠길 정도였다. 대규모 병력을 육로로 이용할 경우 개성에서 한성으로 가는 가장 짧은 거리상의 요충지여서 한국전쟁 당시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곳으로 탱크를 밀고 내려오는 중공군과 맞서 싸우느라 2천여 명의 병사들이 전사했다.

젊은 목숨은 나라를 지키느라 꽃잎처럼 스러져 임진강을 피로 물들였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흘린 피의 값으로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여기서 3킬로만 가면 북한이고 앞에 보이는 산은 비무장 지대이다. 1968년 세상을 놀라게 했던 1,21 사태 때에 서른한 명의 북한 특수부대원들은 청와대와 미대사관 폭파의 임무를 띠고 바로 저 산을 넘어와 이곳 고랑포 여울목을 건너 서울로 침투를 했다.

임진강에 새겨진 역사

임진강 일대는 흐르는 물굽이마다 수많은 역사와 한이 서려 있다. 조선이 개국한지 200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선조는 조정을 버리고 4월 그믐 철쭉 같은 밤 임진강을 건너 몽진을 갔고, 일 년 반 만에 다시 임진나루에 돌아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순국한 병사들의 넋을 달래는 위령제를 지냈다. 의주로 피난 당시 비바람속에 나루를 건너게 된 쓰라린 아픔과 이 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병사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가운데 선조는 통곡하며 “하느님 도움을 받아 이 나루터를 다시 돌아오게 되었구나” 하여 고구려 때 지명인 신지강神智江이 임진강臨津江으로 개칭 되었다 한다.

정면에 가로막힌 산, 구불구불 보이는 길을 따라가면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릉敬順王陵이 있다. 건국 992년간 이어온 신라를, 국가 기능이 마비되자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경순왕은 서라벌에서 개성까지 찾아가 나라를 고려 태조에게 넘겨주었다.

임진강 변 남쪽 솟아오른 봉우리에 영수암永守庵이란 암자를 짓고 태조의 딸 낙랑공주와 결혼하여 아들·딸 낳고 살면서도 서라벌을 못 잊어 경주방면을 바라보며 눈물지었다 한다. 귀부한지 43년 만에 세상을 떠난 경순왕, 비보를 접한 신라 유민들이 장사진을 이루어 경주에 장례를 모시고자 하였다. 경순왕도 서라벌에 묻히고 싶었으리라. 그러나 고려 조정은 경주로 가는 도중 민란民亂이 일어날까 두려워 ‘왕의 구柩는 백리 밖을 나갈 수 없다.’ 하여 고랑포를 넘지 못하였다.

경순왕은 암자 이름을 왜 영수암永守庵이라 했을까. ‘이곳은 영원히 지켜야 한다.’ 신라를 지키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이 나라의 허리인 이곳을 꼭 지키라는 간곡한 당부였는지 모른다.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물길로



천 년 전에는 경순왕이 남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고, 지금은 실향민이 북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린다. 총성은 멎었으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기 저렇게 아름다운 능선은 갈 수 없는 곳이다.

사람들이 갈라놓은 터에 나무와 꽃, 새와 곤충, 동물들은 먼저 통일을 이루어 자유를 만끽한다. 더 나아갈 수 없어 황포돛배는 떠나온 곳을 향해 뱃머리를 돌린다. 조금 전까지 흥에 겨웠던 승객들은 임진강의 슬픈 사연과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애절한 곡조에 숙연해진다.

자연은 한 번도 분단된 적이 없고, 임진강은 남과 북을 나눈 적이 없으나 인간들은 분열과 대립으로 담을 쌓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쌓은 벽은 사람들에 의해 헐리게 되어 있다. 동·서로 높이 쌓아 올린 베를린 장벽이 순식간에 무너졌듯이, 남과 북의 경계도 무너져 내리는 날이 있으리라. 상처 난 허리를 찡찡 감은 임진강은 오늘도 그날을 기다리며 황포돛배를 띄운다.

끝나지 않은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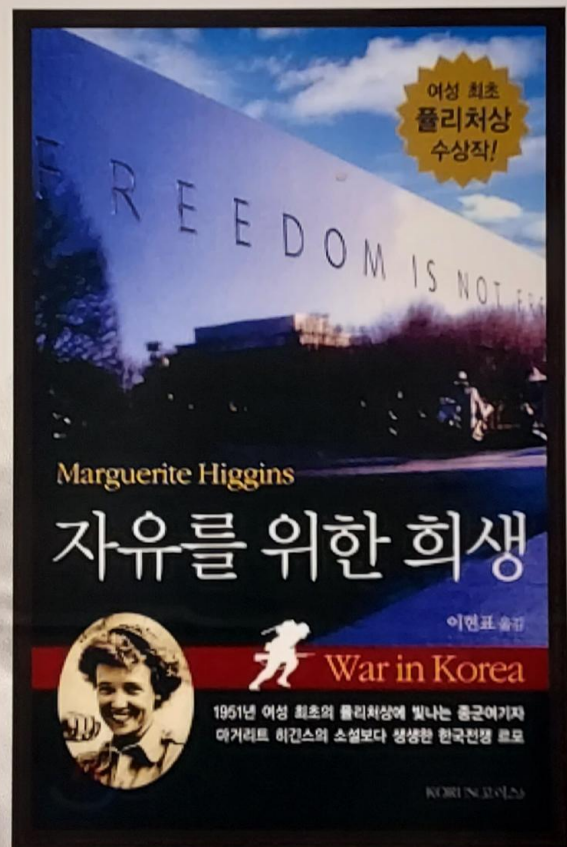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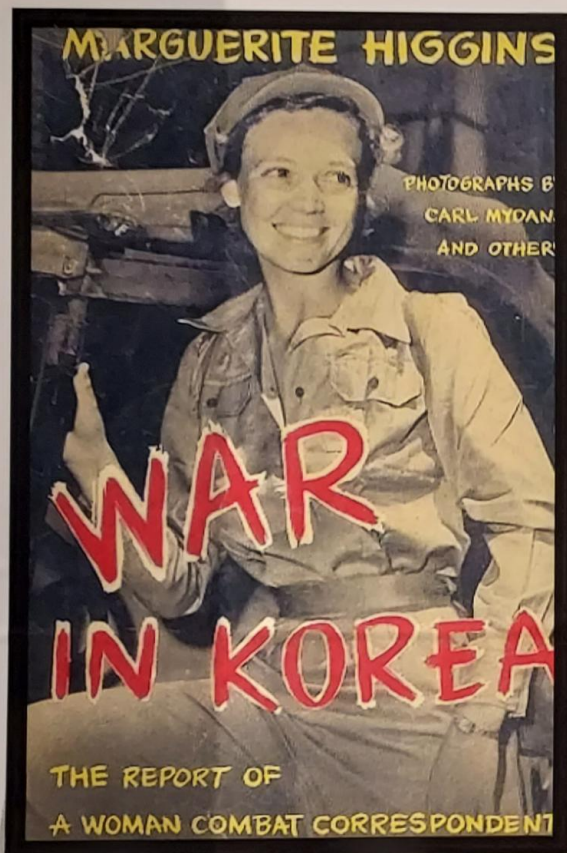
캠프 그리브스는 DMZ 남방한계선에서 2킬로 떨어진 민간인 통제구역에 주둔한 미군 기지였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 미군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군영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주둔한 지 50여 년 만에 부대가 철수하면서 미군기지가 우리에게 반환되었다. 경기도는 문화 재생사업으로 미군들이 불링장으로 사용했던 건축물을 원형 그대로 활용해, 전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진 이름 없는 영웅들을 기억하기 위해 ‘젊은 날의 초상’을 기획했다. 전쟁의 참혹함을 모르는 젊은이들도 갤러리 그리브스에 전시된 전쟁 역사 사진과 자료들을 대하면,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에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캠프그리브스 안내판

사진으로 보여주는 현상은 말과 글보다 몇 배의 설득력을 지닌다. 우리가 지금 영화를 보듯 생생한 전쟁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전쟁의 목격자 종군기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거릿 히긴스’은 대학생 통신원 신분으로 1950년 도쿄 특파원으로 발령받았다. 부임하자마자 한국전쟁이 일어나 그녀는 재빨리 서울의 미8군 군사고문단을 찾아갔고, 그다음 날 한강 다리가 폭파되는 것을 목격했다. 한강 다리 폭파 소식과 가장 치열했던 낙동강 전투를 취재했고,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직접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 리포트를 뉴욕의 편집실로 보내기 시작했다. 임무를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 해,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를 위한 희생: War

in korea』을 집필하여 여성 최초로 풀리처상을 수상했다. 그것을 계기로 ‘마거릿 히긴스’는 미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참상을 알렸고, 한국전쟁을 세계에 알리며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또 한 사람은 미국 NBC방송 기자 ‘존 리지’였다. 그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증언하려 애썼고, 전시 상황 속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가는 우리네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그러면서 “내 바람은 이 사진을 보는 독자들이 한국전쟁을 과거의 역사로만 생각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이 사진들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그들이 겪어야 했던 희생과 아픔, 그리고 강인한 소생의 의지를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를 누빈 이들 종군기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민족이 겪은 고난의 역사를 이렇듯 생생하게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다 아는 일이지만 동족상잔의 비극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되었다. 소련과 중공의 지원으로 전쟁을 준비한 북한군은 T-34 소련제 탱크를 242대나 가지고 있었고, 170여 대의 전투기, 200여 대의 비행기를 갖고 있었다. 반면 국군은 탱크와 전투기는 한 대도 없고, 훈련용 연습기 20여 대가 전부였다. 남한은 무방비 상태였다. 무기도 없고 전투경험도 없었다. 더군다나 국군은 6월 24 자정을 기해 비상경계령을 해제하

면서, 사병들에게 농사일을 도우라고 2주간 특별 휴가를 주어 병력 절반이 외출한 상태였다.

북한군이 황해도 웅진에서 남침하여 국군 제17연대와 격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오후 1시 35분, 김일성은 평양방송에서 ‘남한이 모든 평화통일 제의를 거절하고 웅진반도에서 해주로 북한을 공격했다’고 반대로 방송했다. 그러면서 26일 새벽 2시, 부산을 역습하려고 해군 특공대 600명을 내려보냈는데, 울산 앞바다 백두산함 손원일 제독이 야포를 쏘서 격파시켰다. 특공대를 막지 못하고 울산이 뚫렸다면 대한민국 임시수도 부산은 없었을 것이다. 사태가 위급해지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어 맥아더 연합군사령관에게 지상군 투입과 38선 이북의 군사목표 폭격 권한이 주어졌다. 27일 정부는 대전으로 수도를 이전하였고, 28일 새벽 한강 다리가 폭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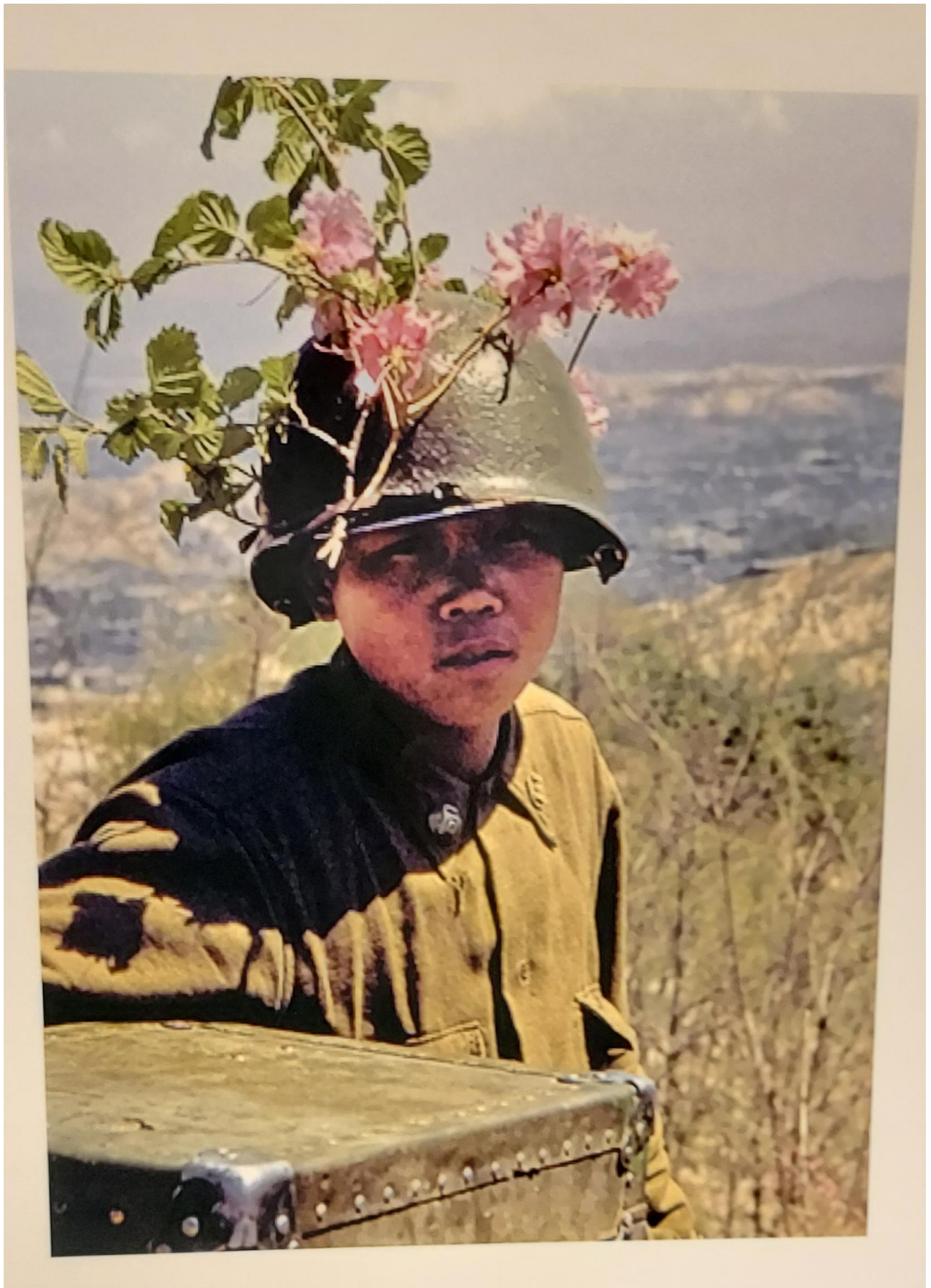
남침 3일 만에 서울은 점령당했다.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자 일본에서 공부하던 유학생 642명이 바다를 건너와 총을 들었으며, 수원에서 500명의 학도대가 조직되었다. 침략당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하여 유엔 창립 후 최초로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가한 국가는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물자와 재정지원국은 39개국이었다. 선발대로 부산에 첫 지상군이 투입되었다. 일본에 주둔하던 스미스 부대는 미 제24단의 21연대 1대대로 540명으로 구성된 특수임무 부대였다. 7월 5일 오산 죽미령에서 유엔군 지상 병력이 처음으로 치른 첫 교전에서 북한군 42명을 사살하고 T-34 전차 4대를 완파했으나, 스미스 부대는 540명 중 30%가 넘는 181명이 실종 포함 희생하면서 북한군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경험했다.

전쟁 발발 두 달 만에 대한민국은 10%밖에 남지 않았다.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학생들은 가방을 내던지고 전장으로 달려나갔다. 책 대신 소총과 수류탄 조작법만 겨우 익혔다. 자신보다 큰 M1소총을 들고 화개 전투에 참여한 학교는 매산고등학교를 비롯해 보성 광양고, 여수중양고, 울산고, 순천제일고, 벌교상고, 여수직업고, 마산고, 등 벌교 강진지역 17개 학교였다. 겨우 183명은 북한군 정예부대 1,000여 명과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전투를 벌였다. 하동과 마산이 뚫리면 부산이 위험해진다. 학도의용대 완장과 태극마크를 그린 띠를 달고 투입된 화개장터 전투는 학도병 최초의 전투였다. 절체절명의 순간 펜 대신 총을 들고 이 땅을 지키는 용기의 상징, 학도병은 화개장터 뒷산 전투 선봉에서 저지하여 3시간 30분을 버텼다. 바닥을 드러내는 탄약, 총알이 떨어지자 총 앞에 단검을 끼우고 적에게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그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소총도 수류탄도 아닌 자신의 목숨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용기’였다. 군번도 계급장도 없이 직접 전투에 참여한 16세에서 18세에 불과한 꽃다운 학도병은 조국을 위해 피지도 못한 채 산화했다, 그들의 값진 목숨의 대가로 하동군민이 피난 갈 시간과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

7월 1일, 미국을 중심으로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속속 도착했다. 그러나 소련과 중공군의 지원을 받아 준비한 강력한 무기를 앞세운 채 대규모 병력으로 공격해오는 북한군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급기야 8월 하순에는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게 되었다. 국토가 10% 남아있는 상태에서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는 것은 패배를 의미했다. 대한민국 최대의 위기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낙동강 전선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철저한 대비를 한 방어선이었다. 북한군도 이 전선만 뚫으면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전력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국군과 미군이 중심이 된 연합군은 낙동강을 방패 삼아 북한군을 45일 동안 맞서 버티며 방어선을 지켰다.

1950년 8월 11일, 포항여자중학교 앞 벌판에서도 전투가 벌어졌다. 전투복 대신 교복을 입고 겨우 총 쏘는 법만 익힌 학도병 71명은 북한군 766 유격대 수백 명과 11시간 동안 격전을 벌였다. 이날 전투로 47명이 전사하고 실종 4명, 부상 6명 등 거의 전멸한 셈이다. 불과 2소대의 학도병들이 장갑차와 기관포,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대대급 정예 유격대와 맞서 한 걸음 후퇴도 거부한 채 끝까지 싸운 처절한 전투는, 지역 주민과 주요기관이 안전하게 피신할 시간을 주었고, 3사단과 미군이 반격할 시간을 마련했다. 전사한 학도병 품에서 부치지 못한 편지가 발견되었다. 동성중학교 3학년 이우근 학도병은 겨우 15살, 포탄이 날아드는 전쟁터가 두려워 엄마한테 편지를 쓰며 위안을 얻었다.

1950년 8월 10일,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열 명은 될 것입니다. 저는 2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류탄의 폭음은 저의 고막을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제 귓속은 무서운 굉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적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고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중략

이우근 학도병의 절절한 편지는 전쟁의 참혹함을 그대로 느껴져 가슴이 먹먹했다. 어린 나이에 바로 앞에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한시바삐 달려가 엄마 품에 안기고 싶었을 것이다. 관람객들도 눈물을 찍어내며 그 앞을 떠나지 못한다. 피에 얼룩진 학도병의 편지는 영화 ‘포화속으로’의 모티브가 되었다.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서울을 되찾은 아군은 평양 탈환과 함께 압록강까지 진격한다. 전쟁이 끝나고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듯하였다. 전세가 기울자 김일성은 모택동에게 파병을 요청했다. 10월 25일, 30만의 대규모 중공군은 압록강을 건너 기습적인 공세로 밀고 내려왔다. 장진호에서 중공군과 미 해병대가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동부전선에서 중공군 6개 사단이 미 해병대와 보병부대를 포위하면서 유엔군 대부분은 무너지거나 고립되었다. 중공군 참전으로 흥남부두 대탈출이 시작되었다. 12월 24일, 10만이 넘는 병력과 피난민 10여만 명, 1만7500대의 각종 차량과 35만 톤의 물자를 수송한 철수 작전이었다. 마지막 출항선에는 무기와 물자를 버리고 정원의 230배를 초과한 1만4000여 명의 피난민을 태웠으며, 선 채로 3일간 겨울 바다를 건너 거제도에 도착했다.

1951년 1월, 중공군은 38선을 넘어 총공격을 개시했고, 10만 병력이 서부전선을 밀고 내려왔다. 서울을 진입했으나 유엔군의 진격으로 중공군은 완승이 힘들다고 판단했는지, 얼마 안 가서 청평 근방의 교두보를 포기하고 북방으로 총퇴각했다. 1년간 격전 끝에 38도선 부근에서 머물자 휴전회담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유엔 주재 소련대사 말리크는 휴전으로 평화를 회복하자는 의견으로 기울었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2년간 협상이 이어졌다. 비무장지대 설치를 위한 군사분계선을 설정을 놓고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었다.

ARTICLE V
MISCELLANEOUS

61. Amendments and additions to this Armistice Agreement must be mutually agreed to by the Commanders of the opposing sides.

62. The Articles and Paragraph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expressly superseded either by mutually acceptable amendments and additions or by provision in an appropriate agreement for a peaceful settlement at a political level between both sides.

63. All of the provisions of this Armistice Agreement, other than Paragraph 12, shall become effective at 2200 hours on 27 JULY 1953.

Done at Panmunjom, Korea, at 1000 hours on the 27th day of JULY, 1953, in English, Korean, and Chinese,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KIM IL SUNG
Marshal,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preme Commander,
Korean People's Army

PENG TEH-HUAI
Commander,
Chinese People's
Volunteers

MARK W. CLARK
General, United States
Army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PRESENT


NAM IL
General, Korean People's Army
Senior Delegate,
Delegat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WILLIAM K. HARRISON, JR.
Lieutenant General, United States
Army
Senior Delegate,
United Nations Command Delegation